

# KT 4개월 만에 4번째 후보 선임... 주주 “외압 반대 운동”

박종욱 부부장 대표 대행 가능성  
재선임 안건 통과 여부 불투명  
4월에 이사진 구성·선임 결정  
올해 가장 부진한 실적 낼 수도

KT는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선정된 윤경림 대표가 후보를 사퇴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외압으로 KT 대표 선임은 결국 3차례나 무산된 셈이다. 4개월 만에 4번째 후보 선임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남기게 됐다. 이로 인해 KT 경영 공백은 현실화됐다.

KT 소액주주들은 윤 후보 사태를 ‘정치권의 외압’으로 규정하는 등 정부와 여권을 성토했고 나섰다.

## ◆빨라야 5월 새 CEO 선임될 것

KT는 27일 윤경림 사장이 차기 대표이사 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회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사장은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새로운 CEO가 선출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KT는 윤경림 대표 최종 후보가 사퇴한다고 27일 공식 밝혔다. /KT

윤 후보의 최종 사퇴로 사내이사로 공식 추천된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과 송경민 경영안정화 TF장의 후보 자격도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됐다.

KT의 이후 대표이사 직무대행에 대해 2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상법 제

386조에는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관과 사규의 직제상 박종욱 경영기획부장이 대표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구현모 현 대표이사가 당분간 대표 체제를 맡을 수 있지만 이번 대표 선임 과정에서 큰 시련을 겪은 바 있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KT는 상반기를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다 다 날린 것으로, KT의 경영 공백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3월 말 이 됐지만 아직까지 인사 및 조직 개편도 하지 못하고 있다. KT는 올해 통신사들 중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 기존 사외이사인 강충구 이사회 의장, 여은정 이사, 표현명 이사가 임기가 끝나면서 주총에서 1년 재선임 건이 안건에 올라왔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글로벌 의결권 자

문사인 ISS는 이들의 재선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외국인 주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안건이 통과하지 못하면 김대유, 유희열, 김용현 등 기존 사외이사 3명만 남게 되는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빨라야 5월이 되어야 KT의 새 CEO가 선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월 중 이사진 구성을 완료하고 임시 주총을 열어 이사진 선임을 결정해야 한다. 이사진 총원이 완료되면 그제서야 CEO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KT 혼란 가중

‘KT 주주모임’은 윤 후보 최종 사퇴가 결정되자 큰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KT 주주모임은 소액주주들의 힘을 더 키우고자 주시수 2023주를 목표로 ‘KT 주식 한주 더 갖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KT 주주모임 대표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외압 반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회원은 “이 정권은 정치권 낙하

산 인사를 얹혀 먹거리를 챙기는 게 최고의 목표인 것 같다”며 성토했다.

네이버 KT 종목 토론실에서도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주주는 “최소한 국민 눈치라도 봐야 하는데,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KT 직원들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KT 한 직원은 “3년마다 CEO가 바뀌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올해가 특히 더 심하다”라고 호소했다.

KT 노조는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이사회를 비롯한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 이사진은 전원 사퇴하고 즉시 ‘비상 대책기구’를 구성해 경영공백을 없애고 조합원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T새노조는 성명을 통해 “경영공백을 넘어 기업지배구조 붕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정치권 낙하산이 대표로 앉혀진다면 KT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시장에서의 면담할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경제불황에도 게임업계 임금 인상 릴레이

넥슨·엔씨소프트 등 6~8% 인상  
매출 상승·인재 보유 전략 원인

게임업계 사이에서 거세게 불었던 임금 이슈가 한동안 잠잠해 질 전망이다. 노조가 결성돼 있는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기본급을 인상 시키면서다. 경제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임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고 기업은 눈치게임에 시작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게임사인 넥슨, 스마일게이트, 웹젠 등의 게임사들 뿐만 아니라 엔씨소프트도 직원들의 기본급을 약 6~8%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1년 임직원 연봉을 약 1200만원 일괄 인상시키는 등 연봉인상 릴레이가 이어졌던 이후 2년 만이다.

그간 연봉 인상 릴레이는 게임사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인건비는 대폭 상승했지만 신작부재와 신사업 투자 탓이다. 이에 그간 게임사들은 인건비를 위주로 허리띠를 졸라 때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 2분기 넥슨, 스마일게이트, 웹젠은 직원 기본급을 지난해보다 약 8% 인상한다. 세 기업 모두 매출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좋은 실적을 거둔 넥슨은 직원들의 기본급을 약 8% 인상 협의했다. 넥슨은 지난해 고용한파에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스마일게이트 역시 기본급을 8%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스마일게이트는 노조가 나서 포괄임금제를 없애고 드롭 권고사직 관행도 중단한 바 있다. 이는 오히려 직원들의 보호 효과, 고용안정 효과, 임금인상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이다.

강성 노조로 유명한 웹젠도 기본급을 평균 8%로 인상했다. 웹젠노조는 지난해 임금 인상을 놓고 게임업계 중 최초로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의 합의로 이어졌고, 올해 연봉인상에 반영됐다.

지난해 다소 부진한 성적을 거둔 엔씨소프트는 넥슨, 스마일게이트만큼은 아니지만 약 5%~6%대의 임금인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엔씨는 글로벌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나섰지만 국내에서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엔씨의 이번 연봉인상 방침은 넥슨, 스마일게이트를 중심으로 게임업계 전체에 불어닥칠 연봉 일괄 인상 바람이 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재를 지켜야 한다는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 BMW코리아, 뉴 X1·뉴 iX1 출시

BMW코리아는 국내에 뉴 X1과 뉴 iX1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BMW X1 외관은 전면부에 7자 형태 LED 주간주행등과 일체형 키드니 그릴, 후면에는 상단을 향해 꺾이는 LED 리어라이트와 대형 디퓨저 등 새로운 BMW 패밀리 룩을 이어받았다. 차체도 길이가 55mm, 폭은 15mm 늘었다. 높이는 15~25mm 높아졌다. 트렁크 용량은 490~540L, 2열을 접으면 1495~1600L까지 넓게 쓸 수 있다. 이번에는 전동화 모델 뉴 iX1도 추가됐다. 5세대 BMW e드라이브 시스템에 편의 사양도 탑재했다.

/BMW코리아

## 포바이포 샌드박스 자회사 SBXG 전격 인수

비주얼 테크 솔루션 기업 포바이포가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기업 샌드박스네트워크의 자회사 ‘SBXG(구, 샌드박스게임)’를 전격 인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포바이포는 이번 인수를 통해 SBXG 회사 전체 지분 중 약 60%를 확보하며 이 회사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 기존 모회사 샌드박스네트워크는 SBXG의 소수 지분을 보유하고 앞으로 상호 전략적 협력관계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e스포츠팀 ‘리브샌드박스’로 널리 알려진 SBXG는 게임, 콘텐츠, 리테일 부문에 걸쳐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갖춘 e스포츠 업계 대표 기업이다.

/최빛나 기자

## 아시아나항공 ‘전사 기업결합 TF’ 발족

대한항공과 해외 기업결합심사 시작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해외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해외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기울이기 위한 ‘전사 기업결합 TF’를 발족했다.

원유석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한 해당 TF는 임원 7명을 포함해 총 42명의 임직원들로 구성됐다. 이는 전략기획본부장이 팀장이던 기존 TF를 대폭 강화한 조치다.

이번 TF는 운영 체계를 법무, 전략기획부문을 주축으로 한 총괄그룹과 여객, 화물, 재무, 대외협력부문을 구성된 지원그룹으로 구분해 효율성을 높였

다. 총괄 그룹은 경쟁당국에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문서 취합, 검토, 자문사와 의견 조율 등의 업무를 맡고, 지원 그룹에서는 경쟁당국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생성에 주력한다.

특히, 해외 경쟁당국의 2단계 심사가 시작되면서 각 경쟁당국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점점 방대해져 심사 대응 역량 강화에 주력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무대행 중심 TF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 인력을 추가로 보강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TF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 원유석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필두로 아시아나항공의 전사적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배터리 핵심 소재 ‘황산니켈’ 공장 준공

LS그룹, 27만톤 규모 확대 예정

LS그룹이 배터리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LS는 27일 충남 아산 토리컴 사업장에 황산니켈 생산 공장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토리컴은 LSMnM 출자사로 유기금속을 리사이클하는 회사다. 지난해 3200억원 매출을 거두며 국내 최대 규모 도시광산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새 공장은 LS MnM이 생산한 조황산 니켈을 공급받아 불순물 정제와 결정화를 거쳐 이차전지용 황산 니켈을 생산하게 된다. 연간 생산 능력이 5000톤 규모로, 2030년까지 27만톤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LS MnM은 이를 위해 글로벌 소싱 네트워크를 활용, 니켈 수산화 침전물(MHP)과 폐이차전지 전처리 생산물(블랙파우더) 등 원료를 추가로 확보하며 생산 능력을 끌어올리는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양극재 소재인 전구체 사업에도 진출해 황산 니켈 전량을 활용하는 밸류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황산니켈은 리튬이온 배터리 전구체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양극재 공정에 바로 투입해 생산 단계를 줄일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

구자는 회장은 “이번 황산니켈공장 준공이, LS그룹의 미래에 작지만 의미 있는 여정의 첫걸음”이라며 “LS MnM과 토리컴의 성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